(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 報告書 第126輯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대상구역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2012. 11

남해군
NAMHAE-GUN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目　　次

Ⅰ. 조사개요 3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4
1. 남해군의 자연·지리적 환경 4
2. 남해군의 고고·역사적 환경 5
1) 남해군 역사개요 5
2) 남해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9
3) 고려~조선시대 남해지역의 수계 및 도로망 16
4) 남해군 역사관련 문헌사료 19

Ⅲ. 조사내용 22
1. 민속 및 지질·자연환경 분야 22
1) 조사대상지역 개관 22
2) 민속과 문화행사 22
3)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전승 23
2. 고고·역사분야 24
1) 남산 25
2) 장개등들 26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28
1. 문화재 현황 28
1) 사업예정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28
2) 사업예정지역 문화재 현황 29
2. 종합고찰 29

참고문헌 31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32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33

圖面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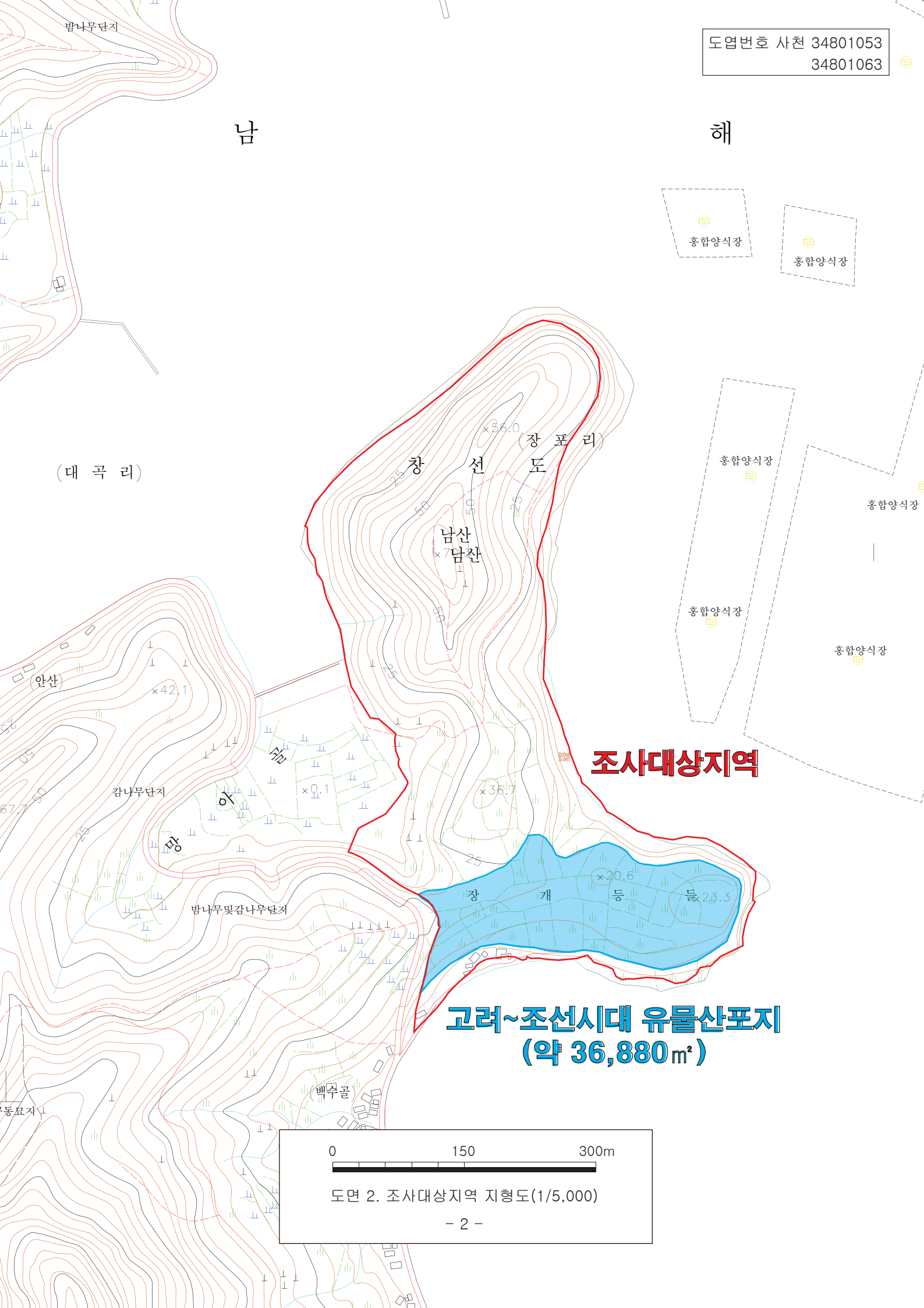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2

圖版目次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항공사진, 남→북)....24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원경(항공사진, 북→남)....24
도판 3. 조사대상지역 원경(항공사진)....24
도판 4. 남산 전경(항공사진)....25
도판 5. 남산 동쪽 사면부 전경(남→북)....25
도판 6. 남산 서쪽 사면부 부분전경(서→동)....25
도판 7. 남산 능선부 고사리밭 전경(남→북)....25
도판 8. 남산 북동쪽 사면부 나주 정씨·진주 강씨 합장묘(동→서)....26
도판 9. 남산 동쪽 사면부 밀양 박씨·분성 배씨 부부묘(동→서)....26
도판 10. 남산 남쪽 사면부 강릉 유씨·현풍 곽씨 부부묘(남→북)....26
도판 11. 남산 남동쪽 사면부 강릉 유씨·인동 장씨 부부묘(남→북)....26
도판 12. 장개등들 전경(항공사진)....27
도판 13. 장개등들 근경(북서→남동)....27
도판 14. 장개등들 부분전경(북동→남서)....27
도판 15. 장개등들 북쪽 사면부 전경(북서→남동)....27
도판 16. 조사광경....27
도판 17. 장개등들 수습 청자편 일괄....27
도판 18. 장개등들 수습 백자편 일괄....27
도판 19. 장개등들 수습 석제 어망추 일괄....27
도판 20. 장개등들 북쪽 사면부 강릉 유씨·김해 김씨 부부묘(북→남)....28
도판 21. 장개등들 서쪽 사면부 강릉 유씨·남양 홍씨 부부묘(남→북)....28
도판 22. GPS 측량광경....30
도판 23. 항공사진 촬영광경....30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엽번호 사천 34801053
34801063
남 해
밤나무단지
홍합양식장
홍합양식장
홍합양식장
홍합양식장
홍합양식장
홍합양식장
(대 곡 리)
(장 포 리)
창 선 도
남산
남산
안산
감나무단지
밤나무및감나무단지
장 개 등
백우골
조사대상지역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약 36,880㎡)
0
150
300m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Ⅰ. 조사개요

1. 조사명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대상구역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금번 지표조사대상지역은 남해군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에 추진예정인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부지로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거해 사업지구 내 문화유적의 유존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존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표조사는 당초 147,303㎡의 면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착수신고 하였으나 남해군의 사업면적 확대로 인한 계획변경에 따라 38,174㎡의 면적이 추가되어 총 면적 185,477㎡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표조사는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정문화재와 고문헌, 발굴조사 보고서와 학술지 등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사업예정부지 전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였으며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현장기록 및 사진, GPS좌표 등을 철저히 기록하여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조사대상지역 및 면적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
(당초면적 : 약 147,303㎡ → 변경면적 : 약 185,477㎡)

4.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 ~ 2012년 11월 15일
・사전조사 : 5일/ 현장조사 : 2일/ 정리분석 : 3일/ 보고서 작성 : 10일

5.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책 임 조 사 원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조 사 원 : 심종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준 조 사 원 : 김민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진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박지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현정(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6. 조사의뢰기관

남해군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1. 남해군의 자연·지리적 환경

경상남도 서남부에 위치하는 남해군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거제도, 진도 다음의 네 번째로 큰 섬으로, 1973년 남해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육지와 연결되었다. 지리적으로 동쪽은 통영시, 서쪽은 전라남도 광양시·여수시, 북쪽으로는 하동군·사천시, 남쪽으로는 대한해협과 접한다.

전체적인 지형은 소백산맥의 줄기가 남해안까지 뻗어내려 이루어진 섬으로 망운산(해발 786m), 금산(해발 701m), 송등산(해발 617m) 등 해발 600~700m의 비교적 높은 산들이 많은 반면, 하천은 모두 짧고 평야도 매우 협소한 편이다. 지세는 소백산맥의 말단부가 거창군·산청군·함양군·하동군을 거쳐 내려와 바다에 함몰되었다가 다시 본 섬에서 솟아올라 일부 산악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기복은 낮지만 적지 않은 산들이 분포하고 있다. 평야지대는 전체면적의 약 25%정도로서 대부분이 해안이나 산곡을 따라 형성된 분지에 분포한다. 군 관내에는 68개의 섬이 있는데, 3개의 유인도(큰섬·범섬·노도)와 65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산지는 군의 서부에 망운산을 비롯하여 녹두산(해발 451m), 사학산(해발 340m), 삼봉산(해발 422m), 관대봉(해발 469m), 천황산(해발 395m), 망기산(해발 340m), 응봉산(해발 473m) 등이 있다. 동부에는 금산과 송등산, 괴음산(해발 604m) 등의 높은 산들을 비롯하여 산성산(해발 371m), 금음산(해발 481m), 대국산(해발 375m), 노구뒷산(해발 501m) 등이 펼쳐져 있다. 군에 부속된 섬인 창선도에도 연대산(해발 339m), 동금산(해발 358m), 대방산(해발 468m), 망치산(해발 268m) 등이 있다. 하천은 이들 산악에서 발원한 입현천, 동산천, 초음천, 무림천, 다천천, 화천천 등 15개의 하천들이 산지를 개석하여 곳곳에 작은 분지와 평지를 형성하면서 각 방향으로 흐른다.

우리나라 3대 다우지 중의 하나로 수량은 풍부하지만, 지형적 영향으로 인하여 빗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대체로 규모가 작다. 이에 따라 평야도 작고 협소한 편이며 서북부인 섬진강 하구에 대사주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은 남해안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리아스(rias)식 해안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다. 해안선 연장은 302km로서 굴곡이 심하며 군 동쪽으로 강진, 동대, 미조, 앵강 등의 만과 작은 포구들이 형성되어 있다.

남해군의 지질은 그 분포상 대부분 경상분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 중생대

말기인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계지층에 속하며 대표적인 지층은 낙동통을 기저로 하여 신라통과 불국사통으로 크게 구분되는 경상누층군에 속한다.[1] 불국사화강암층이 지배적이며 토양은 대부분 표층이 얕은 산지 암설토이나 해안지역에는 충적토가 분포한다.

기후는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온난다우한 해양성기후를 보이고 있다. 남해의 따뜻한 동한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대체로 온난한 편이며 일교차가 적다. 또한 남해군은 섬이지만, 1973년에 남해대교가 육지인 하동군과 연결되었고, 1980년에는 창선도와 남해 본섬이 연결되었으며 2003년에는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되어 육지와 서로 연계되는 비교적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2. 남해군의 고고·역사적 환경

1) 남해군 역사개요

(1) 선사시대~삼국시대

선사시대 인류역사의 발전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지형과 기후 등 자연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 내지 군락을 이루고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남해안에 해당하는 서부경남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는 이에 잘 부합되고 있어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서부경남지역의 경우, 이미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조사된 바 있으며 이 중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는 매우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조건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지리적으로 남해안에 접하고 있어 온화한 기후의 혜택과 비옥한 토지, 그리고 풍부한 해산물 등이 있어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에도 작은 세력을 가진 읍락이나 부족 같은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곳곳에 산재하는데, 다정리, 남변리, 평현리 등 각지의 해안평야를 비롯하여 심지어 도서지역인 창선도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어 최소한 이 시기부터는 이 지역에 권력을 지닌 집단이나 군집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이후 남해군과 관련된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이나 계급분화, 권력형성

1) 경상누층군은 2억 3천만년 전부터 6천 3백만년 전까지 계속된 중생대의 지층을 대표한다. 중생대 말의 백악기에 쌓인 이 지층은 경상남·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경상분지라고 부른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 2002.

등의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와 『三國史記』에 나타난 주변국과 관련된 일부 기록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유적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정해 볼 수 밖에 없다.

우선 『三國志』弁辰條에는 당시 남해군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지역 삼한 소국들에 대한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 중 남강을 중심으로 하는 진주지역은 弁辰 12국 중의 하나인 '古淳是國', 북쪽으로 접해 있는 하동지역은 '樂奴國', 서쪽에 접해 있는 고성지역은 '古資彌凍國'으로 비정되고 있으므로 남해지역에도 이들 소국들과 관련된 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三國史記』의 '浦上八國'에 대한 기록이다. 삼국시대 이전 포상팔국은 그 세력이 전 남해안까지 뻗쳤으며 당시 삼한사회를 거쳐 농경사회로 발전하고 있던 가야연맹체나 신라와도 충돌한 것으로 볼 때, 당시 포상팔국은 이미 상당한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2] 이 8국 중 현재 그 지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곳은 4국으로[3], 그 중 남해군과 인접하는 사천시 지역이 '사물국'으로, 그리고 고성군 지역이 '고사포국'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들 소국들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은 남해군 일대에도 소국 내지 주변지역 보다는 작은 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이에 따라 삼국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 이곳에 존재하였던 세력은 경상도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하였듯이 초기에는 가야연맹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馬韓을 비롯한 弁辰韓 등 삼한의 통·폐합 성장과정을 거쳐 삼국시대가 고착되는 어느 시점, 또는 포상팔국이 신라와 치른 竭火城戰鬪를 고비로 가야연맹체나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가야연맹체를 거쳐 신라나 백제의 권역으로 편입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삼국이 완전히 정립된 이후 이 지역은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으며 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이 백제의 영역이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日本書紀』나 『三國史記』에 나타난 인근지역과 관련된 기록을 참조한다면 백제의 영역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4세기적 상황은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을 정비하여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영역을 넓히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백제의 近肖古王때로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패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그 세력이 중국, 일본에까지 미쳤다. 남해군과 접해 있는 하동군의 기록 중, 4세기 경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백제의 영역으로 예속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日本書紀』卷9 <神功> 50年 夏5月條(百濟 近肖古王 25년, 370)에 의하면, "多沙城을 (백제에) 增賜하여 (倭와) 왕래하는 驛으로 하였다"라고 한 점[4], 그리고 『三國史記』의 진주와 관련된 기록에서도 처음에는 백제 '居列城'

2) 『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第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第八 勿稽子條.

3) '浦上八國'이란 남해안 지방인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에 나뉘어져 있던 소국들로서 8개 국 중 그 위치가 비정된 곳은 骨浦國(마산 또는 창원), 柒浦國(진동 또는 칠원), 古史浦國(고성), 史勿國(사천)의 4국이다.

4) 『日本書紀』卷第九 <神功皇后> 五十年 夏五月條.

또는 '居列州'였던 것이 신라 文武王때 장군 欽純과 天存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공략하여 거열성을 함락시키고 신라의 영토에 편입하여 '居列州'로 하였다는 사실[5]을 비롯하여 다른 서부경남지역들이 이전까지 백제의 영역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남해군 역시 백제의 영역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신라~고려시대

삼국시대의 남해군은 『三國史記』<地理志>에 의하면, 신라 神文王이 '轉也山郡'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후 통일신라 景德王 16년(757)에 전국을 '9州 5小京'으로 행정구역개편 할 때, '轉也山郡'을 '南海(郡)'로 개칭하고, '蘭浦縣'과 '平山縣' 2개의 속현을 관할하게 하였다.[6] 이 행정체계는 고려 초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아[7] 경덕왕 때의 행정개편은 별다른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에는 전라도와 서부경남지역 일대가 견훤이 건국한 후백제의 권역에 해당하였던 점으로 보아 남해군도 후백제의 권역에 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들어 초기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成宗 2년(983)에 전국을 '12牧'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방 호족세력들로 인하여 당시 중앙에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었으며 이에 成宗 14년(995)에 지방행정체계를 다시 '4都護府 10道'로 개편하였다. 이후 顯宗 9년(1018)에 전국을 '4都護府 8牧 56州郡 28鎭'으로 나누게 됨으로서 고려의 지방제도가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신라 때 이루어진 지방명칭과 행정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체계와 명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은 고려의 지방행정체계가 완비되는 顯宗 9년(1018)에 현령을 두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외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없다.

한편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였는데, 高宗 10년(1223)~恭讓王 4년(1392)까지의 169년간 총 529회에 이른다. 특히 恭愍王代에서 禑王代에 이르기까지 총 493회로서 침략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노략질과 규모 또한 점차 대담해져 남해안의 삼남지방은 물론 심지어 평안·함경지방을 비롯한 내륙까지 침략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닷가에 위치한 남해군은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였다. 『高麗史』<地理志>에 의하면, 恭愍王 7년(1358)에 왜구의 폐해로 그 땅을 잃고 진주 任內[8]의 大也川部曲에 僑寓(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할 정도였고, 당시 속현이었던 蘭浦縣과 平山縣 또한 왜구로 인하여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두 없

增賜多沙城 爲往還路驛.

5)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六 文武王 三年條.
二月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列城 斬首七百餘級……(下略).

6)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7) 『高麗史』 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南海縣.

8) '任內'란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9] 또한 禑王 10년(1384)에는 海道都元帥인 鄭地가 觀音浦에서 왜구를 크게 격파하기도 하였다.

(3) 조선시대~근・현대

조선 초에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은 太宗 14년(1414)에 河東과 南海를 합쳐 '河南縣'이라 하였다가, 이듬해인 同 15년(1415)에 河東縣과 다시 분리되어 당시 진주 임내의 金陽部曲을 내속하여 '海陽縣'으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2년 뒤인 太宗 17년(1417)에 金陽部曲이 다시 진주로 예속되고, '南海縣'으로 독립되었다. 世宗 元年(1419)에는 남해현이 昆明縣과 합쳐져 '昆南郡'이 되었다가, 同 19년(1437)에 昆南郡을 다시 나누어 '南海縣'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世宗實錄』<地理志>에는『高麗史』<地理志>에 기록된 사실과 같이 당시 南海縣의 영현이었던 蘭浦縣과 平山縣 두 속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고려 말에 왜구로 인해 사람과 가축이 모두 없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람과 가축이 없고 다만 그 땅만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10]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왜구의 폐해로 사람들이 거주할 만 한 여건이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燕山君 4년(1498)에는 고을사람이 求禮民 裵目仁[11]과 더불어 謀叛하였다고 하여 縣監(從6品)으로 강등되었다가, 中宗 2년(1507) 다시 縣令(從5品)을 설치하면서 승격되었다.

한편 남해지역은 조선의 鎭管體制 성립에 따라 해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世祖 12년(1466)에 진관체제가 형성되었을 당시 남해현은 진주진관에 소속되었으며 수군은 薺浦鎭管 휘하의 平山浦萬戶가 통제하였다. 그리고 成宗 17년(1486) 미조항에 수군첨사진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왜구로 인해 한때 폐쇄되었다가, 中宗 17년(1522)에 복구되었으며 정유재란 때인 宣祖 31년(1598)에는 이순신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노량에서 승전(노량대첩)을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남해지역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 유배된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조선 中宗 14년(1519)에 己卯士禍로 金緣가 유배되어 <花田別曲>를 지었으며 肅宗 15년(1689)에는 <九雲夢>을 지은 金萬重, 英祖 47년(1771)에는 柳義養이 유배되어 <南海聞見錄>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조선 말인 高宗 32년(1895)에는 '23府制'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인해 '晋州府 南海郡'이 되었다가, 이듬해인 高宗 建陽 元年(1896)에 다시 '道體制'가 부활되면서

9)『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南海縣.
10)『世宗實錄』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昆南郡 및『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一 <南海縣>,『慶尙道邑誌』<南海邑誌> 등의 문헌자료 참조.
11) 문헌마다 '求禮人 裵目仁'에 관한 기록 중, 성명이 혹 '裵自仁', '裵仁目'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기록에서 '裵目仁'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誤記인 듯 하다.

비로소 '慶尙南道 南海郡'으로 행정개편되었다. 그리고 光武 10년(1906)에 진주 관할이었던 창선도가 면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남해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에는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타 행정구역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남해군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73년에 이동면의 갈도가 통영시로부터 편입되고, 1979년에 남해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1邑 9面'체제를 형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남해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1) 남해분사대장도감(팔만대장경 조성)과 정안

고려에 대한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면서 부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이라는 국란 타개를 위해 현종 2년(1011) 부인사 대장경을 판각하기 시작해 선종 4년(1097)에 완성하여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으나, 고종 19년(1232) 몽고의 2차 침입 때 소실되고 만다.

이후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해도와 산성에서 지구전으로 몽고병을 저지하면서 항전을 계속했다. 이러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시금 불력의 수호를 기원하기 위한 대장경 판각을 준비하게 된다. 고종 23년(1236) 시작된 대장경 조판은 16년이란 세월이 흘러 고종 38년(1251)에서야 완성되었다. 위기에 몰려있던 고려는 그 저항 수단으로 불교를 믿던 당시의 민중을 동원하기 위해 대장경 판각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 호국을 위한 장기적인 몽고 저항을 이뤄낼 수 있었다. 대장도감이 강화도 복원사에 설치되었고, 남해에 남해분사도감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팔만대장경 판각사업에 들어갔다.

팔만대장경 조판을 총괄하는 관청은 대장도감이었다. 몽고와의 전란 중에 있던 강화도 피난 정부는 팔만대장경 조판이라는 커다란 役事를 감당하기에는 물자수송에 어려움이 따랐다. 조정에서는 전란 중이라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최이의 주도하에 백성들의 불만을 종교적인 민족 자긍심의 고취 차원으로 승화시켜 사업을 시작했다.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남해가 중요 거점지가 되었던 이유로는 첫째, 육지는 전국 어디나 몽고 병사들의 피해를 입었지만, 해안에 위치한 남해는 피해가 거의 없었으며 육지는 몽고병에 의해 국토가 초토화되어 육상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해상으로만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남해안의 중간에 위치한 남해는 해운의 요충지로 부각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남해는 최씨 일문의 세습적 식읍이었기 때문에 최이의 경제적 지배가 가능하였다. 셋째, 대장경판의 版木이 되는 후박나무, 비자나무, 괴목이 남해에 무수히 서식해 있었고, 판각에 필요한 판하본을 만들 때와 대장경을 완성하고 난 후 인쇄에 필요한 한지를 만드는 재료인 닥나무 자생지가 남해에 있었으며 대장경판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따뜻한 바닷물에 나무를 담구어 진을 빼내는 작업을 하기에 편리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자연적 조건

이 결합되어 남해에 남해분사대장도감이 설치되었다.

또한 고종 28년(1241)에 鄭晏이 국자제주로 있다가 동지공거가 되어 진사를 취하고, 얼마 후에 퇴거하여 불교를 독실히 믿으면서 그의 모든 사재를 들여 남해분사대장도감에서의 팔만대장경 간행을 도와 남해분사대장도감은 활기를 얻게 된다.

남해분사대장도감이 언제 설치되어 언제까지 존손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문헌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종 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군내외 사정, 즉 대외적으로는 몽고군의 침략으로 인한 전국의 황폐화와 대내적으로는 최씨 정방정치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 등으로 대장경의 조판 기간을 단축해야하는 상황 하에 남해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하였을 것이다. 남해분사대장도감에서는 대장경을 판각하기 위한 판각용 나무를 벌목하여 처음에는 통나무로 잘라 나무진을 빼기 위해 바닷물 속에 넣고, 이것을 건져내어 음지에 말려 각수가 판각하도록 하기 위한 鉛版작업과 여기에 새길 판하본의 필사작업을 먼저하여 판하본 작성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남해에 분사대장도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장의 분사도감판에는 장소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나 남해분사대장도감에서 고종 33년(1246), 고종34년(1247), 고종 35년(1248)의 3년에 걸쳐 판각한 부장인 宗鏡錄에는 분사남해대장도감이라는 간기가 있어 남해에서 판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사대장도감은 고종 30년(1243), 고종 31년(1244)에는 대장도감과 동일한 기능에서 판각 작업을 했으나 그 후 3년 동안은 그 기능이 상당히 축소, 약화되어 고종 41년(1254)까지 판각하는 기능이 계속되었다. 여기서 정장과 함께 국고 32호로 취급된 부장은 모두 15종이다. 그 중 종경록 책 27丁未歲에는 '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 이란 刊記가 있어서 이곳이 팔만대장경 조성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남해분사대장도감에서 만들어진 것은 조당집, 대방광불화엄경수현분제통지방궤, 화업경탐현기 등 4종으로서 고종 32년(1245)부터 고종 35년(1248) 사이에 판각되었다.

① 鄭晏(?~1251)

고려 중기의 문신으로 초명은 奮, 자는 和卿으로 형부상서 정세유의 손자, 평장사 숙첨의 아들이자 최우의 처남이다. 어려서 문과에 급제하여 음양, 산술, 의약, 음률에 정통했으며 권신 崔怡의 주청으로 국자제주가 되어 고종 28년(1241)에는 동지공거를 겸했다. 최이의 전권이 날로 심해지자 화가 두려워 남해로 물러나 불교를 독신하였으며 사재를 희사하여 팔만대장경의 일부를 간행하였다. 고종 38년(1251) 최우의 아들 최항이 정권을 잡은 후 지문하성사를 거쳐 참지정사에 올랐으나 그의 명성이 높은 것을 시기한 최항에 의해 반란을 꾀하였다는 죄목으로 백령도에 유배되었다가 살해되었다.

(2) 고려시대 왜구의 침입과 최영, 정지장군

왜구의 침입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왔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그 수가 더욱 빈번해지게 된다. 고종 10년(1223)에 금주에 침입하여 해안지방을 약탈하였으며 원종 4년(1236) 2월에는 熊神縣에 침입하였다. 원종 6년(1265)에는 남도 연해주군을 약탈하고, 다시 충렬왕 6년(1280) 5월에 고성, 칠포, 합포에 침입했다.

왜구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것은 충정왕 2년(1350)부터로 고성, 죽림, 거제 등지를 침입하여 합포에서 崔禪이 싸워 이겼다. 충정왕 원년(1352) 8월 왜선 50여척이 합포에 침입했고, 공민왕 3년(1354)에는 전라도에서 漕船 40여척을 약탈해갔으며 공민왕 6년(1357)에 승천부 興天寺가 약탈당했다. 공민왕 11년(1358)에 남해안에 침입하여 고려의 배 300여척을 방화하고 달아났다.

남해지역 또한 왜구의 침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충정왕 3년(1351) 11월에는 대규모의 왜구가 침입하여 파괴, 약탈을 자행함에 따라 백성들은 왜구에게 붙들려 가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에 공민왕 7년(1358)에 진주관 내 대야천부곡으로 주민을 임시로 이주시켜 남해현과 그 속현인 평산현, 난포현이 폐현되었다. 남해지역의 왜구 침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해지역의 왜구침입 기사

왕	일시	피해 사항	전 과
충정왕	3년 11월 6일	닥치는 대로 짓밟혔다.	
공민왕	10년 3월 6일	침략 민가 방화.	
공민왕	18년 7월 9일	항복해서 살고 있던 왜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본국으로 돌아감.	
우왕	9년 5월	해상 진격중 병마사 尹松이 전사.	鄭地장군이 47척의 병선으로 120척의 倭寇船을 격파, 합포군의 원수 류만수와 합동작전으로 觀音浦와 朴頭津에서 이기니 적의 시체가 바다를 뒤덮었다.
공양왕	폐위년 2월 26일		만호 李興仁이 대첩을 이루니 쌀20석의 상을 내렸다.
명종	11년 3월 23일	정체불명의 병선이 平山浦를 거쳐 羅老島로 향했다.	

① 崔瑩(1316~1388)

고려 말기의 명장 惟淸의 5대손으로 사헌규정 元直의 아들이다. 양광도 도순문사의 휘하에 있으면서 여러번 왜구를 토벌하여 공을 세웠으며 공민왕 1년(1352) 9월에 조일신이 난을 일으키자 안우, 최원 등과 그 일당을 소탕하고 護軍에 올랐다. 同 3년(1354) 중국 산동 고우에서 반란을 일으킨 장사성을 치기 위해 원에서 원병을

요청하자 그는 대호군으로서 난군을 토평하고, 그 용맹을 떨쳤다. 서북면병마부사가 되어 吾刈浦[長淵]에 침입한 왜구의 배 400척을 격파, 同 10년(1361) 홍건적이 창궐하여 개경까지 점령하자 이를 격퇴시킨 후, 1등 圖形壁功臣에 典理判書가 되었다. 同 12년(1363) 흥왕사의 변을 진압하여 盡忠奮義佐命功臣 1등이 되고, 판밀직사사에 승진한 뒤 평리를 거쳐 찬성사가 되었다. 同 13년(1364) 원나라에 있던 최유가 덕흥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군사 1만으로 쳐들어오자 서북면도순위사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의주에서 섬멸했다. 다음 해에 왜구가 교동, 강화를 침략하자 동서강도지휘사로 있다가 신돈의 참언으로 鷄林尹에 좌천되었다. 同 20년(1371)에는 신돈이 처형되자 곧 소환되어 찬성사가 되었다.

우왕 2년(1376)에 鴻山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격파하여 그 뒤 왜구들은 최영을 白首 崔萬戶라 하였다. 同 4년(1378)에 왜구가 승천부에 침입하여 개경까지 위태로워지자 이성계, 양백연 등과 합세하여 적을 멸하고 安社功臣의 호를 받았다.

그 뒤 명나라와 鐵嶺衛 문제가 불거지자 요동정벌을 주장하고, 팔도도통사가 되어 우왕과 함께 평양까지 진출하였으나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高陽에 유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고려의 종말을 초래하였으며 시호는 武愍公이다.

② 鄭地(1347~1391)

본관은 羅州, 초명은 准提로 공민왕 23년(1374) 유원정의 추천으로 전라도 안무사로 발탁되어 倭人追捕萬戶를 겸하면서 양광도안무사 이희와 여러 차례 방왜책을 건의하여 전략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왕 3년(1377)에 예의판서로서 순천도병마사가 되어 순천, 낙안 등지에 침입한 왜구를 연파하고, 同 4년(1378)에 영광, 광주, 담양, 화순 등지의 왜구를 소탕하여 전라도순문사에 이르렀으며 同 7년(1381)에는 밀직으로 海道元帥가 되어 수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듬해 10월 진포에 침입한 왜선을 군산도까지 추격하여 포획하였다.

同 9년(1383) 正月 왜를 해상에서 크게 격파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왜선 120척이 침입해 온다는 合浦元帥 柳曼殊의 급보를 받고, 나주와 목포에 주둔시키고 있던 전선 47척을 이끌고 경상도로 향하였다. 이때 스스로 노를 저어 군사의 사기를 드높였으며 섬진강 어귀에 이르러 합포의 군사를 징집해 군열을 다시 정비했는데, 이미 왜구는 관음포에 도달하였다. 그는 지리산 神祠에서 승전을 기원한 뒤 전투에 임하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순풍이 불어 그의 전선은 나는 듯이 헤쳐 나가 순식간에 朴頭洋에 이르러 적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때 왜구는 大船 20척을 선봉으로 삼고, 배마다 힘센 군사 140명씩을 배치하여 전진해 왔다. 그는 먼저 선봉함선을 무찌르고, 화포를 이용해 선봉대선 17척을 완파하니, 왜구는 전의를 잃고 퇴각하였다.

이것이 관음포에서 일어난 남해대첩(관음포전투)으로, 이 싸움으로 인해 왜구는 17척의 대선과 2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었다. 이때 왜선에는 사신으로 일본에 다녀

오던 軍器尹 房之用이 붙들려 있다가 구출되기도 하였다. 정지의 남해대첩의 공을 기리기 위해 남해에서는 석탑을 쌓아 그 공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공민왕 10년(1384) 문하평리에 이르렀으며 同 13년(1387) 왕에게 글을 올려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 일지도를 소탕할 것을 자청하였다. 다음 해 요동정벌 때는 안주도도원수로 출전했다가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동조했다. 이때 또 다시 왜구가 창궐하자 양광, 전라, 경상도 도절제체찰사가 되어 공을 세웠다. 공양왕 3년(1391)에 판개성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병사했다. 시호는 景烈公이다.

(3) 유배형과 유배지로서의 남해

流配刑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형벌의 하나로, 옛날 죄인을 멀리 변경이나 낙도 같은 곳에 보내어 일정한 형기동안 그곳에서 귀향살이를 시켰던 형벌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관가야[駕洛國]부터 이미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관가야의 6대 왕인 坐知王은 용녀를 왕비로 삼고 있었는데, 왕비의 청원에 따라 그녀의 친척 무리들을 조정에 많이 등용하였더니 파벌간의 세력다툼으로 국정이 문란해지고, 나라의 질서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왕은 박원도의 간언을 받아들여 그 일파들을 멀리 한산섬으로 귀향보내고, 국정을 바로잡아 선정을 베풀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유배형이 제도화 된 것은 고려때부터로 처음에는 放逐鄕里의 뜻으로 사용하다가 뒤에는 徒配, 流配, 竄配, 定配 등의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체형, 즉 형벌은 엄격하여서 笞[매30], 杖[매80], 徒[징역], 流[귀양], 死[사형] 다섯 가지가 있었고, 모반죄 大逆, 惡逆, 불효죄는 중죄로 취급하였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형벌은 고려조와 같이 태, 장, 도, 유, 사의 5종이 있었으나 형량에 따라 流配刑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집행되었다.

유배형의 기간은 勿限年이라 하여 유배지에서 죽을 때까지 귀향살이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사정에 따라 몇 년 또는 몇 달도 안되어 풀려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유배형의 장소는 이천리, 이천오백리, 삼천리, 遠地, 邊遠, 極邊, 絶島 등 여러 가지인데, 대개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섬, 벽지, 북방의 산간지방이 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청, 강원, 황해 등 가까운 곳이나 본인의 고향이 유배지가 되기도 하였고, 막연히 서울에서 쫓아내는 放逐田里나 移鄕 등 가벼운 형벌도 있었다.

유배형의 구체적인 방법은 혼자서 유배생활을 고독하게 치르도록 하는 絶島安置, 본인의 거주지를 제한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거나 가시덤불을 쌓는 圍籬安置와 加棘安置, 본인의 고향에서만 생활하는 本鄕安置 등이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유배지에서 그곳의 주민들과 어울려 살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고, 가족 또는 제자들을 데려가게 하기도 하여 유배형은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학문 또는 교육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유배지로서는 남해 이외에 제주, 거제, 진도, 강화, 흑산도, 백령도, 추자도 등 주

로 서남해안의 낙도가 많이 이용되었고, 극변의 유배지로는 영월, 박천, 영해, 하동, 거창, 해미, 이산, 신천, 길주, 갑산, 영암, 경원, 삭주, 함양 등의 원천 벽지가 활용되었다.

남해의 경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유배객들이 定配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대표적인 유배객은 30여명으로[12], 고려의 상당군, 조선의 영의정, 이조판서, 직제학, 대사헌 등 귀인과 높은 관직의 위인들이 적지 않게 남해로 유배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성종의 4대손인 李成胤을 비롯하여 고전소설 <구운몽>의 저자인 서포 김만중, 이조판서 柳明賢, 鄭澤雷 등은 끝내 풀려나지 못한 채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들이 유배되어 온 배경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의종 16년(1162) 流矢의 變을 들 수 있다. 이는 고려의 무관을 천시하는 崇文抑武 정책에 의해 일어났는데, 고려 의종 16년 1월 14일 연등절에 왕이 봉은사에 행차했다가 밤에 돌아오는 도중 관풍루에 이르렀을 때, 말이 징 소리에 놀라 뛰며 한 騎士의 화살통[矢房]을 들이받아 화살이 왕이 탄 수레[輦] 옆에 떨어졌다. 왕은 문제의 화살이 자신을 겨누고 날아왔던 것이라 오해하여 급히 말을 몰고 돌아와 궁성의 경비를 강화하였다. 왕이 상금을 걸고 범인을 잡아내려고 해도 잡히지 않자 家童, 羅彦 등을 의심해서 죽이고, 牽龍, 禁軍隊正, 최세보 등 아무 죄없는 무인 14명을 호위를 잘못했다고 하여 귀양보낸 사건이 유시의 변이다. 또한 고종 6년(1219) 9월 최충헌이 죽고 그의 아들 최이가 집권하자 반대파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게 되는데, 이에 周演之가 남해로 귀양 보내졌으며 정안이 남해로 은퇴하였다. 또한 임유무가 모반죄로, 宋君斐가 충혜왕 복위 문제로 남해로 유배되었다.

① 崔世輔(?~1193)

고려 18대 毅宗의 금군 隊正으로 있었으나 의종 21년(1162) 유시의 변에 혐의를 받고 남해로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년 후인 明宗 원년(1171) 정중부의 난으로 무신들이 득세하자 복직되어 명종 11년(1181) 지추밀원사, 同 14년(1184)에는 문하시랑평장사, 판병부사상장군에 올랐다. 同 20년(1190) 판이부사를 지낸 뒤 守太師까지 올랐으나 최충헌이 정권을 잡자 쫓겨나 南裔로 귀양갔다.

② 白頤正(1247~1323)

본관은 藍浦, 자는 若軒, 호는 彝齋이다. 대사성 文節의 아들로 태어났다. 충렬왕 1년(1275) 문과에 급제했으며 충선왕 때 첨의평리로 商議會議都監事를 겸했고, 뒤

12)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남해로 유배된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 崔世輔, 周演之, 宋君斐, 白頤正.
조선시대 : 趙貫, 金詮, 李仁, 金紱, 金彎祥, 李翊, 鄭彦信, 成俊耇, 金德誠, 趙浚, 鄭澤雷, 李成胤, 羅萬甲, 眞伊, 慶安君, 南九萬, 李微明, 李頤命 金萬重, 權大運, 柳命賢, 朴聖源, 徐浩修, 柳義養, 俞彦鎬, 尹耆東, 沈權
南海郡誌編纂委員會, 『南海郡誌』, 1994.

에 上黨君에 봉해졌다.

충렬왕 24년(1298) 왕을 따라 연경으로 건너가서 10년간 연구하고 돌아와 이후 후진 양성에 힘써 李齊賢, 朴忠佐, 李穀, 李仁復, 白文寶 등 많은 문인을 배출했으며 도학과 예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학문적인 면에서 백이정은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 체계를 파악해 크게 일가를 이루었다.

충숙왕 8년(1339) 전왕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증승 조돈 등이 제거된 역모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백이정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남해 난포현으로 유배되어 여생을 마쳤다고 전해진다. 본관이 남포였던 백이정은 고려조에 여러 공로를 세워 유배지인 남해를 賜籍받아 본관을 남해로 하는 남해 백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계유정난(1453), 무오사화(1498), 기묘사화(1519), 기축옥사(1589), 인목대비 폐비사건(1618), 강빈옥사(1646), 갑술옥사(1694) 등에 연루되어 많은 유배객이 남해로 오게 되었다.

① 金緅(1488~1534)

안평대군, 한호, 양사언과 더불어 조선 전기 4대 서예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자는 大柔, 호는 自菴으로, 성종 19년 예산에서 현감 季文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종 6년(1511) 별시문과에 乙科로 급제, 홍문관정자를 거쳐 同 10년(1515) 부수찬으로 승진되었다. 同 14년(1519)에 조광조가 대사헌에 오르고, 김구는 부제학의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기묘사화에 의해 투옥된 후 개령에 유배되었다가 곧 남해에 안치되었다.

10여년간 남해 노량에 적거하면서 유생들에게 학문을 전수하고, 남해의 풍경을 노래한 <화전별곡>을 남겼다. 同 26년(1531) 남해에서 임파로 이배되었다가 同 28년(1533)에 사면되어 고향인 예산으로 돌아갔으나 이듬 해 향년 46세로 별세하였다. 그 후 선조때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고 文懿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저서로 <自菴集>이 있다.

② 李頤命(1658~1722)

자는 養叔, 호는 疎齋이며 본관은 전주로 효종 9년(1658) 영의정 敬輿의 孫으로 출생하였다. 숙종 6년(1680) 별시문과 乙科에 급제하여 홍문관의 정자박사를 지내고, 同 12년(1686) 문과중시에 丙科로 급제하여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이후 同 15년(1689) 장희빈의 아들 원자 책봉을 반대로 일어난 己巳換局때 寧海로 유배되었다가 同 18년(1692)에 남해로 移配되었다. 2년간 남해에서 귀향살이를 하며 인근 향사들에게 충신효제의 길을 가르쳤다. 2년 뒤 갑술옥사로 남인이 실각되자 풀려나 호조참판으로 재기용되었다.

이어 강화부유수를 역임하고, 숙종 24년(1698)에 대사간이 되었으나 형인 이사명의 죄를 변호하다가 공주로 다시 유배되었다. 이듬 해 유배에서 풀려나 형조참판,

예조참판을 거쳐 대사헌 판의금부사 등 높은 벼슬을 역임하고, 同 31년(1705) 우의정, 同 34년(1708)에 좌의정에 이르렀다. 당대의 석학으로 성리학에 정통했으며 특히 청나라 실학사조에 관심이 깊었고, 서학도 연구하였다.

숙종 말년에 소론은 세자인 昀(후의 경종)을 지지하고, 노론은 延礽君(후의 영조)을 지지하여 대립하는 辛壬士禍(1721~1722)가 일어나게 된다. 노론은 경종 즉위 뒤 1년 만에 延礽君을 世弟로 책봉하는 일을 주도하고, 세제의 대리청정을 강행하려 하였다. 소론측은 노론의 대리청정 주장을 경종에 대한 不忠으로 탄핵하여 정국을 주도하였고, 결국에는 소론정권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金昌集, 李頤命, 李健命, 趙泰采 등 노론의 4대신을 비롯한 대다수의 인물이 화를 입었다. 이이명은 신임사화가 일어남에 따라 관직을 박탈당하고 남해로 두 번째 유배되었다. 이에 그를 추앙하는 원근 향사와 사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다. 이후 이를 시기한 목호룡이 이이명이 남해에서 이천기 등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모함을 고변함에 따라, 즉시 소환되어 경종 2년(1722) 4월에 사사되었다.

이이명이 사거한 78년 후인 정조 24년(1800) 남해읍 북변리에 鳳川祠를 세우고 묘정비를 세워 그 덕을 추모해 왔으나, 현재는 비만 남아 있다.

③ 金萬重(1637~1692)

자는 重叔, 호는 西浦로 본관은 광산이다. 인조 15년(1637) 생원 金益兼의 遺腹子로 태어났다. 현종 6년(1665) 응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지평, 수찬교리 등을 거쳤다.

숙종 11년(1685) 홍문관 대제학에 올랐으며 이듬해 지경연사로 있을 때, 서인 김수항의 아들 창협의 처형에 부당함을 상소하여 선천으로 유배되었다가 3년 후 방환되었다. 이듬해에 숙종이 총애하던 숙원 장씨가 왕자를 낳았는데, 이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놓고 당쟁이 일어나자 숙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누르고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이를 반대한 송시열을 사사하였다. 이에 김만중이 숙종의 처사를 강경하게 공격하자 박진규, 이윤수 등의 탄핵을 받고 남해 櫓島로 유배되었다.

남해에 유배생활 중 <구운몽>을 한글로 집필하여 소설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숙종 24년(1698) 관직에 복직되었고, 同 32년 효행에 관한 정표가 내려졌다. 작품과 저서로는 <사씨남정기>, <구운몽>, <서포만필>, <서포집>, <고시선> 등이 있다.

3) 고려~조선시대 남해지역의 수계 및 도로망

역참과 조창은 고려시대의 육로 및 수로의 운수를 담당한 대표적인 교통기관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역참은 공문서 전달 관리의 안내와 숙박, 관물의 수송, 政令 및 공부의 전달과 특수물자의 수송 등

을 목적으로 고려시대에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 역참에는 역전, 역정, 역마가 구비되어 있었고, 역은 교통량과 군사 및 경제의 중요성에 따라 대·중·소 3등급으로 구별되어 각각 公須田, 紙田, 長田, 公須柴地, 館田 등이 역의 구별에 따라 급여됨으로써 참역의 경비와 객관의 식료를 공급하게 했다.

정부의 각 기관에서 주부에 보내는 공문서는 먼저 상서성에 알려 이곳에서 가부를 결정한 다음 首譯인 靑郊驛에 보내 전국 각지에 전달하게 하였다. 주요 도로에는 대략 30리 거리에 역을 두고 공문서를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공무 여행자에게 마필 및 숙식을 제공하고, 관물의 수송도 담당하였다.

『高麗史』<兵志> 站驛條에는 22개소의 역도와 그에 소속된 525개소의 역참명이 기록되어 있다.[13] 이들 525개소의 역참 중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역이 360개소이며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역이 130개소이다.[14]

[표 2] 고려시대 행정단위별 역의 분포[15]

	경기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교주도	동계	북계	합계
1역	5	42	58	42	7	10	28	17	209
2역	3	9	16	7	4	5	4	14	62
3역	1	3	5	2	1	2	3	6	23
4역	-	2	4	-	1	3	2	2	15
5역	-	-	1	-	-	-	1	1	3
6역이상	-	3	1(7역)	-	-	-	1(10역)	1(9역)	6
기타	-	-	-	-	-	-	-	4[16]	-
역합계	14	95	133	62	26	38	68	89	525

고려시대의 도로망은 군현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고려시대 도로망을 보면 계수관을 중심으로 한 간선 교통구(기본 도로망)와 그 밑에 여러 속군, 속현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사부, 지사군, 현령관을 중심으로 한 지선 교통구(말단 도로망)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3경 4도호부와 8목을 중심으로 간선도로가 이루어지고 각각 그 밑에 지방관들이 파견된 5개소의 지사부, 57개소의 지주사, 29개소의 현령관, 23개소의 영·진들에 지선 도로망이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간선도로망과 연결되어 있었다.

역참에는 역장, 역리, 역졸을 두어 역정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수십 개소의 역을 한 道로 하여 지방에서 역을 지키는 외직인 종6품 찰방 또는 종9품 역승이 이를 관장함과 동시에 중요 정보도 수집·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한 외직이던 종9품 도승

13)『高麗史』卷82 <志>36 兵2 站驛.
14) 劉善浩, 「高麗郵驛制硏究」,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5) 정요근, 「고려시대 驛 분포의 지역별 불균등성」, 『지역과 역사』24, 부경역사연구소, 2009.
16) 소재지가 불분명한 홍화도 소속 장령역과, 운중도 소속 蘇民, 新定, 通路의 3역은 별도로 북계의 기타 범주에 포함시켰다.

은 전국의 주요 渡船長을 맡고 있었는데 뒤에 별장으로 대치되었다.

역과 역 중간에는 站을 설치하여 공적인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참은 고려시대에 시작되어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각 도에 참을 설치하고 衙祿田을 지급하여 경비에 충당하였다. 선조 30년(1597)에 군사상 필요가 증대하여 종래의 제도를 고쳐 파발을 두게 되었으며 또 변방의 보고를 중앙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撥站을 증설하였다. 파발은 다시 25리에 하나씩 설치된 騎撥과 30리에 하나씩 설치된 步撥로 나누어 외교·군사상의 요지에 설치되었다.

또한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로 館, 院 등이 있었으며 그 경비를 위해 원위전 등을 지급하여 경영·관리하였다. 공무를 띤 여행자는 대개 관이나 역원에서 숙식을 제공받았으며 일반여행자들은 주로 주막을 이용하였다.

남해지역에는 노량에서 들어온 도로가 고현면으로 접하는 설천면의 德新驛院이 고려 중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장 유서 깊은 역원이었다. 이후, 조선 중엽에는 덕신역을 비롯하여 露梁院, 只族津院 등 3개소의 역원이 있었다. 노량원과 지족진원은 당시의 所渡處 즉 항구의 조창 기점 구실을 겸한 것에 비해 덕신역원은 육상 역원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북으로는 곤양 良浦驛과 연결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도로망은 서울을 기점으로 한 의주간의 제1선, 경흥, 서수라까지의 제2선, 강릉, 평해까지의 제3선, 유곡, 동래, 부산까지의 제4선, 유곡, 고성, 통영까지의 제5선, 소사, 삼례, 고성, 통영까지의 제6선, 서울, 소사, 삼례, 해남, 관두량, 제주까지의 제7선, 소사, 중청, 수영까지의 제8선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해 덕신역은 이 중 제6선에 속해 있었다. 처음은 역승의 지휘하에 있었으나 중종 30년(1535)에 찰방의 관할로 되었다. 晋州鎭管 南海縣誌에 따르면 덕신원은 현의 북쪽 35리 지점에 있고, 북으로 30리에 곤양 양포역이 있었다. 중마 5필과 복마 4필이 있었으며 역리는 22명이다. 노량원은 노량의 남쪽해안, 현의 북쪽 40리 지점에 있었다. 只簇院은 현의 동쪽 30리 지점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역참이 육로의 운송을 담당하였다면 수로의 운송은 조창이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조창은 조세미의 운송을 위해 수로연변에 설치한 창고로 해상수송을 맡은 조창을 海運倉, 江上 수송을 맡은 조창을 水運倉이라고 하였다.

조창의 제도가 완비된 것은 고려 성종 11년(922)으로, 각 조창에서는 매년 2월부터 4~5월까지 稅米를 수송하도록 하였으며 횡령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각 조창에 倉監理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 왜구의 발호로 수송은 전폐하다시피 되고, 육로로 운송하게 되면서 조창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 조운제도가 다시 정비되었으나 해안의 조창은 예성강 구에서 섬진강 구에 이르는 서해안 몇 군데를 두는데 그쳤고, 남해안에는 영조대에 이르러 설치되었다.

이 조창에 보관된 조세미, 즉 국가에 수납하는 전세 및 대동미를 일정기간 후에 수운과 육운에 의하여 京倉에 소송하니 이것을 조운, 또는 漕轉이라 하였다. 경기,

충청, 황해, 경상, 전라 제도의 연해읍에서 漕船[17]을 준비해 두고, 漕軍[18]으로 하여금 이를 경창에 소송시켰으며 조선이 없는 제읍에서는 지방의 관선을 賃用하여 운송하였다. 조세미의 운송은 원칙적으로 조운으로 하였으며 조창이 없는 제읍에 한하여 육운을 허락하였다. 국가는 조세미의 상납기간을 정하고 조운에 있어서 發船日까지 명시하여 두었다. 기일 내에 발선하지 않았거나 발선하여도 기일 내에 상납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처단하였다.

남해지역에서는 이 조창이 노량에 있었다. 여기서 "쌀 377石 5斗 3刀 6合 6夕, 콩 204석 9도 8합, 公作米 180석 12두를 2월 본군 노량조창에서 수봉하여 3월에 선박에 옮겨 싣고, 전라도 순천 구도를 향해서 흥양 희연도-장흥 우두도-영암 갈두포-진도 벽파정-나주 역도-무안 탑성도-영광 법성포-무장 안변포-만경 군산-옥과 통죽도-충청도 당진 원산도-해미 안흥-정양 구미포-태안 서근포-보령 난지도-경기도 부평 수취도-강화 갑고지포-연미정-갈두-마포-용산에 이르면 25일 정오에 도착하나 해운은 육로와 달리 바람이 불면 가고 없으면 가지 못하여 체류하는 날을 일일이 계산하기가 불가능하여 서울에 도달되기가 한없이 지체되니 軍資倉 및 宣惠廳에 납고할 쌀 33石 5斗와 전세를 일시에 수봉하여 배에 싣고 본군 船所 앞바다를 경유하여 다대포진 앞바다에서 동래 부산창에 납부한다"라고 晋州鎭管 南海縣誌에 기록되어 있다.

4) 남해군 역사관련 문헌사료

[표 3] 남해군 역사관련 문헌사료

	문헌	내용
史料 1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도 역시 12國으로 되어 있다. 또 작은 여러 別邑이 있는데, (이들 모두에는) 제각기 渠帥가 있다.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큰 곳은 그 우두머리를 '臣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險側'이라 하였으며 다음에는 '樊濊'가 있고, 다음에는 '殺奚'가 있으며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中略)…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中略)…弁辰樂奴國…(中略)…弁韓과 辰韓은 도합 24국이 된다……(下略).[19]
史料 2	『三國史記』卷34 <雜志>3 地理1	南海郡은 神文王이 처음 설치한 轉也山郡으로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다. 景德王이 명칭을 고쳤는데, 지금도(고려) 그대로 따른다. 領縣은 둘이다. 蘭浦縣은 본래 內浦縣이었는데,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平山縣은 본래 平西山縣(西平이라고도 한다)이었는데,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20]

17) 국가에 수납하는 조세미를 각 지방의 조창에서 경창으로 운반하는데 사용되던 배.
18) 조창에 소속되어 조세미를 운송하는 漕船을 부리던 사람,

史料 3	『高麗史』 卷57 <志> 第11 地理2 南海縣	南海縣은 본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었는데, 신라 神文王이 처음 轉也山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南海로 하였다. (고려) 顯宗 9년(1018)에 縣令을 두었으며 恭愍王 7년(1358)에 倭(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 任內의 大也川部曲에 僑寓(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하였다. 屬縣은 둘이다. 蘭浦縣은 본래 신라의 內浦縣으로 南海島에 있었던 것을 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남해에) 來屬하였는데, 고려 초에도 그대로 하였다. 후에 倭寇로 인하여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두 없어졌다. 平山縣은 본래 신라의 平西山縣(西平이라고도 한다)으로 역시 南海島에 있었던 것을 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南海郡 領縣으로 하였다. 고려 초에도 그대로 하였다. 후에 倭寇로 인하여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두 없어졌다.[21]
史料 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1 <南海縣>	동쪽으로 晋州 경계까지 40里, 서쪽으로 바다까지 15里이며 남쪽으로 바다까지 36里이고, 북쪽으로 露梁까지 38里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1,045里이다. 〔建置沿革〕 본래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신라 神文王이 처음으로 轉也山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이 縣令을 두었으며 恭愍王 때 倭(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의 大也川部曲에 僑寓(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하였다. 本朝(조선) 太宗朝에 河東과 합쳐서 河南縣으로 칭하였다가, 뒤에 다시 河東縣을 설치하고, 진주의 金陽部曲이 來屬하여 海陽縣으로 불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金陽이 진주에 환원되고, 다시 南海로 불렀다. 世宗朝에 昆明縣과 합쳤다가 다시 이를 나누고 그대로 縣令을 두었다. 殿下(燕山君) 4년(1498)에 마을사람이 求禮人 裵目仁과 더불어 謀反하였기에 縣監으로 강등하였다. 〔郡名〕 轉也山・海陽・轉山・花田・輪山이다.(觀風案에 있다)[22]
史料 5	『燃藜室記述』 別集 卷16 <地理典故> 州郡 南海	성이 있다. 바다 가운데의 섬이다. 신라 때 轉也山郡이라고 하다가 南海로 고쳤다. 고려 때 縣을 두었다. (조선) 太宗 때 하동과 합쳐 河南縣이라고 하였다가 후에 나누어 海陽縣이라고 불렀다.(진주의 金陽部曲을 예속시켰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진주에 환속하였다) 世宗 때 昆明縣과 합쳤다가 다시 나누었다. 轉山・花田・輪山이라고도 한다. 7개 面이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는 1,045里이다. 蘭浦와(신라 때의 內浦縣이다) 平山은(신라 때의 平西山縣인데 西平이라고도 한다) 폐현이다.[23]

史料 6	『輿地圖書』 <慶尙道南海>	〔晋州鎭管 南海縣〕동쪽으로 진주까지 40里이며 서쪽으로 해안까지 15里이다. 남쪽으로 해안까지 36里이며 북쪽으로는 露梁까지 38里이다. 京都로부터 1,045里 떨어져 있다……(下略). 〔建置沿革〕(上略)……本朝(조선) 太宗朝에 河東과 합쳐서 河南縣으로 칭하였다가, 뒤에 다시 河東縣을 설치하였으며 진주의 金陽部曲을 來屬시켜 海陽縣이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金陽이 다시 진주에 환원되고, 다시 南海로 불렀다. 世宗朝에 昆明縣과 합쳤다가 다시 이를 나누고 縣令을 두었다. 燕山(君) 4년(1498)에 고을사람이 求禮民裵目仁과 더불어 謀叛하였기 때문에 縣監으로 강등하였다가, 中宗 2년(1507) 다시 縣令으로 하였다. 〔別號〕轉也山・海陽・轉山・花田・輪山이다.(觀風案에 있다)[24]

19)『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中略)…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中略)…弁辰樂奴國…(中略)…弁辰韓合二十四國……(下略).

20)『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南海郡 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蘭浦縣 本內浦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平山縣 本平西山縣(一云 西平) 景德王改名 今因之.

21)『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南海縣.
南海縣 本海中島 新羅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景德王 改爲南海郡 顯宗九年 置縣令 恭愍王七年 因倭失土 僑寓晋州任內大也川部曲 屬縣二 蘭浦縣 本新羅內浦縣 在南海島 景德王 改今名來屬 高麗初因之 後因倭寇人物俱亡 平山縣 本新羅平西山縣(一云 西平) 亦在南海島 景德王 改今名爲南海郡領縣 高麗初因之 後因倭寇人物俱亡.

22)『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一 <南海縣>.
東至晋州界四十里 西至海岸十五里 南至海岸三十六里 北至露梁三十八里 距京都一千四十五里
〔建置沿革〕本海中島 新羅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顯宗 置縣令 恭愍王時 因倭失土 僑寓晋州大也川部曲 本朝 太宗朝 合于河東 稱河南縣 後復置河東縣 以晋州金陽部曲來屬 稱海陽縣 未幾金陽還屬晋州而復稱南海. 世宗朝 合于昆明縣 復析之 仍爲縣令 殿下四年 縣人與求禮民裵目仁 相應謀叛 降爲縣監.
〔郡名〕轉也山・海陽・轉山・花田・輪山(觀風案).

23)『燃藜室記述』別集 卷之十六 <地理典故> 州郡-南海.
南海 有城 海中島 新羅轉也山郡 改南海 高麗置縣 太宗朝合于河東 稱河南 後復析稱海陽縣(以晋州金陽部曲來屬未幾還屬晋州) 世宗朝合于昆明縣 復析之.
轉山 花田 輪山.
七面 距京一千四十五里.
蘭浦廢縣(新羅內浦縣) 平山廢縣(新羅平西山縣 一云西平)

24)『輿地圖書』<慶尙道-南海>.
〔晋州鎭管 南海縣〕東至晋州界四十里 西至海岸十五里 南至海岸三十六里 北至露梁三十八里 距京一千四十五里……(下略).
〔建置沿革〕本朝 太宗朝 合于河東 稱河南縣 後復置河東縣 以晋州金陽部曲來屬 稱海陽縣 未幾金陽還屬晋州 而復稱南海 世宗朝 合于昆明縣 復析之 仍爲縣令 燕山四年 縣人與求禮民裵目仁 相應謀叛 降爲縣監舊增 燕山四年 降爲縣監 中宗二年 復置縣令
〔郡名〕轉也山・海陽・轉山・花田・輪山(觀風案).

Ⅲ. 조사내용

1. 민속 및 지질·자연환경 분야

1) 조사대상지역 개관

창선면은 남해군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부속섬 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다. 지리적으로 동쪽은 한려수도와 접하고 서쪽은 남해와 접해 있다. 남쪽은 지족해협을 사이에 두고 삼동면과 창선교로 연결되며 북쪽은 바다 건너 사천군 서포면과 마주 하고 있다. 행정상으로는 남해군에 속하나 생활권은 사천시에 속하며 전체 면적 54.35㎢에 16개의 법정리와 32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1973년 남해대교가 육지인 하동군과 연결되었고, 1980년에는 남해 본섬과 창선대교, 2003년에는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되어 사천시와 연계되었다.

본래 진주군에서 대벽, 율도, 당항, 동대, 서대, 광천, 옥천, 상신, 상죽, 지족, 수산, 당저, 부윤, 가인, 오용, 진동의 16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고종 광무 10년(1906)에 남해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면이 굴곡이 많은 바다인 관계로 질 좋은 조개류가 명산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의 문화재로는 중종 30년(1535)에 진동리에 세운 <國祀峰祠堂(남해군 보호문화재 제5호)>이 있는데, 매년 9월 1일 赤梁僉使가 국왕의 평안을 빌기 위하여 북향예배하던 곳이자 제기를 보관하던 곳이기도 하다.

2) 민속과 문화행사

남해군에는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민속행위와 놀이가 전해져 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생활자체와 관련된 것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어업과 관련된 민속이 여러 가지 전해진다. 이 중 의식과 놀이, 민요와 설화, 동제 및 문화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5]

남해군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로는 '남해 화전농악', '石射(일명 石箭)', '覽勝圖', '상주 정월대보름 달맞이놀이' 등이 행해지고 있다. '남해 화전농악'의 경우 그 연원이나 내력은 확실하지 않고, 단지 유배문화설, 지역자생설, 인근지방 전수설의 3가지 설로 추측될 뿐이다. 남해 화천농악의 대가인 상쇠 정창기 옹을 필두로 하여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주 개천예술제', '밀양 아랑제' 등 수많은 행사에서 상을 타기도 했다. '石射놀이'는 돌을 가지고 노는 놀이의 한 종류이며 주로 추석때 씨름

25) 남해군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에 관한 자료는 『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文化遺蹟分布地圖-南海郡』(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남해군, 2004)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대회와 함께 많이 행해진다. 그리고 '覽勝圖'는 그림놀이의 일종으로 남해읍 서변동 일대에서 행해졌다고 하나 지금은 전승되지 않고 있다.[26]

그리고 현재 남해에는 명맥이 끊겼지만 거제도를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에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굿'이 있다. '남해안 별신굿'은 해안지방 판 굿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는 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되어 통영시의 '남해안 별신굿보존회'에서 보존·전승되고 있다. 그 연원은 예로부터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일종의 '풍어굿'에서 비롯되었으나, 마을의 평안과 장수를 기원하는 '기원굿'의 성격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 짜임새는 굿의 시작을 알리는 '들맞이 당산굿'에서부터 액과 재앙을 소멸시키는 '띠뱃놀이'까지 모두 18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해에 전승되는 민요의 경우 과거 육지와 떨어져 유배지로 활용된 섬이었다는 지리적·사회적 영향이 내용에 반영되어 대부분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얽힌 서민의 애환을 소재로 하고 있다. 현재 구전되고 있는 주류는 대부분 노동요로 '정자소리', '노젓는 소리', '고기푸는 노래' 등이 있는데, 바닷가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농업 노동요의 비중이 서로 비슷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설화나 전설의 경우는 주로 인물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국산성에 얽힌 두 형제이야기'나 '무지개골에 얽힌 부부이야기'가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축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화전문화제'는 매년 10월 2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펼쳐진다. 남해문화의 총집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남해군의 고유 민속놀이와 예술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져 특색 있는 지역문화로 자리 매김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의 역사성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이곳에서 전사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노량해전을 재현하는 '이충무공 노량해전승첩제'도 개최되고 있다.

3)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전승

진동리는 본래 진주군 창선면에 속해있던 지역으로 진동이라 하였는데, 고종 광무 10년(1906)에 창선면이 남해군에 편입되면서 남해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장포리, 신곡, 대곡을 병합하여 현재의 진동리가 되었다.

이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 중 마을과 관련된 것으로는 大谷, 新谷, 서편, 長浦, 赤梁 등이 있다. '적량'마을은 진동리의 중심되는 마을로 다른 이름으로 '성내'라고도 불린다. '대곡'마을은 적량마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하며 적량마을의 서쪽에는 '서편'마을이 있다. '장포'마을은 대곡 마을 동남쪽에 위치하며 그 동남쪽에는 '신곡'마을이 있다.

다음으로 섬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진동리의 남쪽에 '목섬'이 위치하며 장포마을 앞에는 '북섬', 적량마을 앞에는 '동굴새미'라 불리는 섬이 각각 위치한다. 곶과 관

26)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慶南民俗資料集』,1993.

련된 지명으로 적량마을과 셋개 끝에 '진끝'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또한 일제시대 竹本會社에서 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 나루터 및 골짜기와 관련된 지명으로 예전에 활을 쏘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간석골' 등 여러 지명이 전해진다.

2. 고고·역사분야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의 창선도 동쪽의 작은 반도에 해당한다. 반도의 북쪽에는 남산(해발 70.3m), 남쪽으로는 장개등들이라는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3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다. 상기와 같은 지형조건에 따라 지표조사는 북쪽의 남산 구릉부와 남쪽의 장개등들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상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항공사진, 남→북)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원경(항공사진, 북→남)



도판 3. 조사대상지역 원경(항공사진)

1) 남산

조사대상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는 남산(해발 70.3m)은 크게 3개의 구릉으로 구분되는데, 구릉의 경사가 급하며 바다와 접하는 동·서 양안은 해식작용으로 인해 기반암이 드러나 있었다. 남산과 장개등들 사이의 능선부는 고사리밭, 산지의 대부분은 임야에 해당하며 북서쪽의 해안가에는 선박수리장, 남서쪽의 곡간부에는 우사가 연접한다.

지표조사 결과, 전체적인 사면의 경사가 급하여 인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보이며 유구 및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남산의 북동쪽 사면부에는 나주 정씨·진주 강씨 합장묘, 남산 동쪽 사면에는 밀양 박씨·분성 배씨 부부묘가 조성되어 있고, 남서쪽 사면부에는 김해 김씨 납골당 및 가족묘, 남쪽 사면부에는 강릉 유씨·현풍 곽씨 부부묘, 남동쪽 사면부에는 강릉 유씨·인동 장씨 부부묘, 제주 고씨·분성 배씨 부부묘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 분묘는 모두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반드시 이장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판 4. 남산 전경(항공사진)



도판 5. 남산 동쪽 사면부 전경(남→북)



도판 6. 남산 서쪽 사면부 부분전경(서→동)



도판 7. 남산 능선부 고사리밭 전경(남→북)



도판 8. 남산 북동쪽 사면부
나주 정씨・진주 강씨 합장묘(동→서)



도판 9. 남산 동쪽 사면부
밀양 박씨・분성 배씨 부부묘(동→서)



도판 10. 남산 남쪽 사면부
강릉 유씨・현풍 곽씨 부부묘(남→북)



도판 11. 남산 남동쪽 사면부
강릉 유씨・인동 장씨 부부묘(남→북)

2) 장개등들

남산 남쪽에 동-서로 진행하는 정상부가 평탄한 경작지로서 해안과 접하는 북・동・남단은 급경사를 이루며 정상부의 평탄지는 고사리, 토란, 호박, 고구마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장기간 밭으로 사용되면서 삭토 및 정지가 이루어졌으며 남쪽 사면부는 계단식 밭이 조성되어 있고, 그 아래의 해안선은 계속 이어져 장포포구가 위치하는 만을 형성하고 있다.

지표조사 결과, 원지형의 상당부분은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나 장개등들 전역에서 고려시대 청자편, 조선시대 백자편, 옹기편, 시기미상의 석제 어망추 2점 등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조선시대의 생활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장개등들 중앙부를 관통하는 콘크리트 소로를 중심으로 북사면과 서사면에는 최근에 조성된 강릉 유씨・김해 김씨 부부묘와 강릉 유씨・남양 홍씨 부부묘 등이 위치하므로 개발사업시 반드시 이장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판 12. 장개등들 전경(항공사진)



도판 13. 장개등들 근경(북서→남동)



도판 14. 장개등들 부분전경(북동→남서)



도판 15. 장개등들 북쪽 사면부 전경(북서→남동)



도판 16. 조사광경



도판 17. 장개등들 수습 청자편 일괄



도판 18. 장개등들 수습 백자편 일괄



도판 19. 장개등들 수습 석제 어망추 일괄



도판 20. 장개등들 북쪽 사면부
강릉 유씨・김해 김씨 부부묘(북→남)



도판 21. 장개등들 서쪽 사면부
강릉 유씨・남양 홍씨 부부묘(남→북)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 문화재 현황

1) 사업예정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표 5] 사업예정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연번	유적명	소재지	성격	문화재 지정여부	조사기관 의견	이격거리
1	연곡지석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연곡마을	청동기시대 분묘	-	영향없음	약 2,540m
2	구암사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적량리 136-6	고려시대 사지	-	영향없음	약 780m
3	연곡 당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연곡마을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2,780m
4	연곡 당목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연곡마을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2,600m
5	연곡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연곡마을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2,700m
6	국사봉 사당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마을 4-1	조선시대 민속	남해군 보호문화재 제5호	영향없음	약 1,600m
7	적량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마을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1,000m
8	적량 당산・막돌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마을 산4-1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900m
9	적량진성 (창선성・진동성)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 1015번지 일대	조선시대 관방	-	영향없음	약 720m
10	김정필 선정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마을	조선시대 비각	-	영향없음	약 700m

11	대곡 당집, 막돌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대곡마을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420m
12	대곡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대곡마을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500m
13	구도 당집, 밥무덤 2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 2리 구도마을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1,940m
14	장곶산 요망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 2리	조선시대 망대	·	영향없음	약 1,280m
15	장포 당목,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40m (철거)
16	장포 작은당산,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440m
17	장포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740m
18	장포 큰당산, 밥무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조선시대 민속	·	영향없음	약 860m
19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내 사우스케이프오너스 클럽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조선시대 분묘 및 마장	·	영향없음	약 950 ~1,500m (경상문화재 연구원 발굴, 2010~2011)

2) 사업예정지역 문화재 현황

[표 6] 사업예정지역 문화재 현황

조사기관	유적 번호	유적이름	행정구역 (주소)	면적(㎡)	유적성격	조사기관 의견	비 고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	·	·	·	·	·	·

2. 종합고찰

이상으로 남해군에서 시행예정인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대상구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문헌적·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지표조사는 육안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지역은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의 약 185,477㎡이다. 지표조사는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남산과 장개등들로 대별한 후, 도보로 사업예정지와 그 주변지역까지 정밀하게 조사하였다.

2. 남산은 남쪽의 장개등들 배후 구릉으로서 북쪽과 동쪽, 서쪽 일부구간은 해안선까지 급사면을 이룬다. 남산과 남쪽의 장개등들을 연결하는 능선부는 고사리 밭으로 재배 중이며 그 외는 임야 및 현대분묘가 조성되어 있었다. 유구 및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으며 지형조건상 유적이 입지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생각된다.

남산의 남쪽에 동-서로 형성된 장개등들의 정상부와 남쪽 사면부는 고사리, 토란, 고구마, 호박 등의 경작지로 사용 중이며 그 외 북·동사면부는 해안선까지 급사면을 이룬다. 정상부와 남사면부는 장기간에 걸친 경작으로 인해 절토 및 정지가 이루어져 원지형의 상당부분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나 장개등들 전역에서 고려시대 청자편, 조선시대 백자편, 옹기편, 시기미상의 석제 어망추 2점 등이 수습되었다. 이들 유물은 마모도가 심하고 잔편이 많으나 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의 유존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시행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상기의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원지형의 상당부분은 유실되었지만, 고려~조선시대의 생활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장개등들 정상부와 남사면이 포함된 약 36,880㎡의 '장개등들 유물산포지'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및 분포범위 등을 밝힌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지역은 유구 및 유물 등 인간활동과 관련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예정된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남산과 장개등들에 산재하는 수십 기의 현대 분묘는 공사시행전 반드시 이장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금회 사업대상지역과 달리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계획된 공사 시행 중에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도판 22. GPS 측량광경



도판 23. 항공사진 촬영광경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燃藜室記述』
『慶尙道邑誌』
『大東地志』
『三國志』<魏書> 東夷傳
『日本書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韓國民俗大觀』,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慶尙南道民俗集』, 1993.
권상노,『韓國地名沿革辭典』, 이화문화출판사, 1994.
南海郡誌編纂委員會, 『南海郡誌』, 1994.
田溶新,『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5.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1997.
韓國精神文化硏究院 편,『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上・下, 1999.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8-경남편Ⅰ』, 2000.
國史編纂委員會,『한국사』1, 2002.
慶南發展硏究院 歷史文化센터・南海郡,『文化遺蹟分布地圖-南海郡』, 2004.
경상문화재연구원,「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내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0. 11.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내용	사 업 명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사업기간			
	사업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						
	면 적	전체사업면적	185,477㎡		사업목적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조성		
		지표조사면적	185,477㎡					
	사업시행자	기관명	남해군		연락처	055) 860-8635		
지표조사	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배덕환	조사원 이하	심종훈 김민수 김진영 박지윤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배덕환	조사원 이하	이현정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 ~ 2012년 11월 15일 사전조사 : 5일/ 현장조사 : 2일/ 정리분석 : 3일/ 보고서 작성 : 10일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고고·역사분야	15,057,000원	민속분야	원	수중분야	원	고건축분야 원
조사결과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지정문화재	국사봉 사당(남해군 보호문화재 제5호)					
		비지정 문화재	연곡지석묘, 구암사지, 연곡 당산, 연곡 당목, 연곡 밥무덤, 적량 밥무덤, 적량 당산·막돌탑, 적량진성(창선성·진동성), 김정필 선정비, 대곡 당집, 막돌탑, 대곡 밥무덤, 구도 당집, 밥무덤 2기, 장곶산 요망대, 장포 당목, 밥무덤, 장포 작은당산, 밥무덤, 장포 밥무덤, 장포 큰당산, 밥무덤,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내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유적 있음 □유적 없음						
	지상문화재	기존	없음					
		신규	없음					
	매장문화재	기존	없음					
		신규	**있음**					
	건축물	기존	없음					
		신규	없음					
	민속자료	기존	없음					
		신규	없음					
조사기관 종합의견		지표조사 결과, 원지형의 상당부분은 유실되었지만, 고려~조선시대의 생활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장개등들 정상부와 남사면부 약 36,880㎡의 '장개등들 유물산포지'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및 분포범위 등을 밝힌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지역은 유구 및 유물 등 인간활동과 관련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예정된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대상지역내에 산재하는 현대 분묘 수십 기는 공사시행전 반드시 이장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회와 달리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계획된 공사 시행 중에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기관명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印)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② 문화재명	③소재지	④면적 (㎡)	⑤시대	⑥ 종류	⑦유적 구분		조사의견			⑪ 비고
						기존	신규	⑧ 의견 구분	⑨조사 면적(㎡)	⑩사유	
1	장개등들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일원	36,880㎡	고려 ~ 조선 시대	생활 유적	없음	있음	표본 조사	36,880㎡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원지형의 상당부분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나 고려시대 청자편, 조선시대 백자편, 시기불명 석제 어망추 등의 유물이 수습되어 고려~조선시대의 생활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음.	·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 報告書 第126輯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대상구역 문화재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12년 11월 14일
발 행 일 / 2012년 11월 15일

編輯·發行 /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630-81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4길 48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2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483번길 37-15
TEL : (055) 285-1834